마야투어
MAYA TOUR
현지직영 전문여행사
☎ 02)722-9001
신심의 동불로 불쟁지를 밝히는 성지순례!

佛教新聞

bulgyo.com

불기 2557년 9월 14일(2013년 / 단기 4346년 중추 8월10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45호 토

침향은 취운향당에 있습니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건 주준희 법력

佛社研 여론조사 결과…수행·기도법 '없다' 70% 달해

불자들 수행과 기도할 줄 모른다?

사회참여 확대가 '한국불교 과제'

불자 대부분이 수행이나 기도라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불교의 과제는 사회참여 확대를 들는 불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산운 법안 스님는 지난 10일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불자들이 실천중인 수행법이 나 기도법이 '없다'는 응답이 70.4% 에 달했다.

수행법이 없는 이유에 대해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32.0%)이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2%), '수행에 어렵게 느껴서서'(18.5%), '주위에 적당 한 수행 모임 은 없어 서'(15.2%) 등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수행방법을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월1회 이상 사찰에 나오는 불자들의 경우 평반 이상이 수행과 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자의 31.6%는 한국불교가 더 존경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증대'를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꼽았고 나눔과 봉사 등 사회참여 확대(22.4%) 등이 뒤를 이었다. 불자들은 사회참여 확대를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이웃종교인과 두꺼운얼굴 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는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최기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첫번째(46.6%)로 꼽았고, 다른 종교나 정치권이 소통(16.3%), 불교력 수행력(12.07%) 으로 조사됐다.

소장 법안스님은 "조사보고서는 불교발전을 위한 종책을 최나 로 한 자료분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만19세 이상 성인 1천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이다.

▶ 치초상보

홍다영 기자 hong10@bulgyo.com

'천막' 찾아간 총무원장 스님

지난 10일 총무원장 직승스님(왼쪽)이 조계사에서 '천막을 치고 총무원장 연임을 반대하며 단식중인 수좌 스님들을 방문해 면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추천위원회' 무신여 대표 유강용 프리고 한의 수좌회 대목위원장 석주스님 등과 자리를 함께 기대를 대 나눴다.

신재호 기자

교리경시대회, 1만 동참 문화축전으로…

7일~11일 50개 지역서 '나린다축제는 불교축제'

외국인들 '도전 법종을~' 사찬생도 교리경시대회

'비보이대회' 새롭게 마련

불교신들의 교리경시대회로 시작된 나린다축제가 올해로 제3회를 맞은 가운데 지난 7일 '일반부문 도전 법종을 울려라' 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리 실력을 겨루는 분위기축제로 막을 올렸다.

은평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이 공동주최한 나린다축제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동국대 등 전국 50개 고시장에서 연인원 1만명이 동참하는 불교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불교교리경시대회' 와 '도전! 법종을 울려라' '전통불교문화체험마당'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다 '비보이(bi-BOY)대회' 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교리경시대회는 각국 사찬생도부문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도전 법종을 울려라' 는 외국인부문에서 뷔대회는 등 축제의 규모를 더욱 더 확대해 진행했다.

은평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7일 동국대를 찾아 비보이대회를 관람하는 등 나린다축제 관계자와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3인1조로 60개팀이 참가한 일반부문 '도전 법종을 울려라' 는 한국불교대학 대관람사 등과 도량에서 출전한 연꽃사랑팀(양기순, 김동명, 이라윤)이 우승을 차지했다. 양기순 씨는 "불국도량 대명생불자의 지도교사와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뤄 참여했는데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관련기사 9면

교리경시대회는 7일 전국 11개 시도에서 진행된 중·고등 부문에 이어 8일에는 33개 군단단체서 22000명의 군장병이 참여하는 군장병 교리경시대회를, 11일에는 학군사관학교 등 7개 사관학교에서 1100여 명의 생도들이 참여하는 사관생도 교리경시대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지난 7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열린 중·고등부문 교리경시대회에 전인스님 등에 출전한 박예리(동대부고) 이고 1학년양은 "학교에서 법과후수업으로 교리경시대회를 준비했지만 불교교리와 문화를 접는 일문에 다가 한국사를 접는 일문이 많이 출제돼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험을 잘 봤는지는 묻지 말아달라"며 웃음을 지었다.

한편 나린다축제 결과는 오는 10월 초순 은평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인찬 기자 parkjaeok@bulgyo.com

문화이벤 '응답하라 템플스테이 시즌2' 6면

원로의원 무진장 대종사 원적

13일 범어사서 영결식

원로회의장으로 봉행

도대학 대학원에서 천태교학 연구에 매진했다. ▶관련기사 3면

무진장스님은 1971년부터 서울 종로의 중심 조계사에서 주석하며 40여 년 간 수행과 포교에 매진을 한다했다. 스님은 제2대, 4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08년에 종단으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품수 받았다. 2010년에 사찬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으며, 동산불교대학 학장, 광명통일정책자문위원 산업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무진장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조계종 원로의의장으로 오는 13일 금정종립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홍다영 기자 hong10@bulgyo.com

추석연휴스케이 사찰

사찰명	기 간	프로그램	연락처
동리 산문사	9.18~19	가족명상 무다관	031-335-2578
동리 법륜사	9.18~20	산사명상	031-332-5702
조주 관음사	9.18~20	울력명상 신명	041-841-6256
조주 영평사	9.18~22	자비명상 도예체	044-857-1364
해남 수덕사	9.17~22	직조 류의리	041-339-7789
하동 금봉사	9.18~20	달팽소원 보내기	055-882-2371
계곡 불상사	9.18~24	산두고는 산국	054-775-1689
무산 연미사	9.17~22	꿈꿔드리는 포행	051-508-5728
산림 대원사	9.19~20	산사 명상체험	055-974-1112
무안 대소사	9.18~9.20	동체로 만들기	063-583-3035
해남 미황사	9.19~9.22	자연 공부 법구	061-533-3521
인제 백담사	9.18~9.19	자비명상	033-462-5035
동해 강원사	9.18~9.20	전통놀이체험	033-534-7676

템플스테이, 합동차례? 추석 때 어느 사찰 갈까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도 전국의 사찰에서 19일 오전 10시, 일제히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한상 정신스님)은 추석 연휴를 맞은 시민들을 위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연다. 단은 공기측에서 한가위 보름달과 총총한 별을 보는 프로그램도 특징. 부엌 내소사에서 송편빚기와 음력로 만들기를 비롯해 보름달 아래서 소원을 비는 탑돌이 연행을 마련했다. 도 내변산의 직소폭포와 와나구 술집 트레킹을 통해 강서 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수덕사에 달맞이 환산대 자은 음악도 기해 만만 템플스테이도 준주 마곡사에서는 송바람길 산행과 각자 연등을 만들어 달밤 아래서 탑돌이를 하며, 부산 범어사에서 명재을 위한 사찬은 부엌일 체험과 명상 명상을 게획한다. 도 하동 금봉사, 경주 골굴사, 부산 범어사, 인제 백담사 등 전국 13곳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에서 연휴를 맞아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

연휴를 사찰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더불어 사찰에서 차례를 모시는 가족이 늘고 있는 것도 화고다 주세다. 전국 사찰에서는 이러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10시에 일제히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합동차례는 저광라면서도 격식 있는 의식을 봉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날도 참가자가 늘고 있다. 합동차례를 원하는 불자들은 인근 사찰로 문의하면 된다.

안자수 기자 jaam@bulgyo.com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불기 2557(2013). 9. 27(금) 오후 2:00-5:00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기념공연
기념식
천도재
출연 황병기 · 이선희 · 인순이 · 바비킴 · 폴 포츠 · 혜민스님 · 이애주 한국전통춤회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外
사회 신영일 · 박길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주경신도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
문의 http://www.budpeace.org
kpp@budpeace.org
051)508-3125, 3126 02) 739-9081
60 정전협정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한반도평화대회에는 각계각층의 주요인사가 참여합니다.
한반도 평화대회는 대중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